



# 4번타자 최희섭 복귀 안타

### KIA 오키나와 캠프 흥백전...나지완과 경쟁 예고

### 최용규·최병연 2루 시험...양현종·용병 등 마운드도 윤곽

‘호랑이 군단’의 2015시즌이 워밍업에 들어갔다. 흥백전 시작과 함께 KIA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6일 KIA 오키나와 캠프 선수단이 드디어 홈과 원정 유니폼을 나눠입고 적과 적으로 만났다. 이날 이번 스프링캠프의 첫 흥백전이 치러지면서 캠프는 실전에 돌입했다.

중심타자 나지완이 정상적으로 곧 재활캠프를 끝내고 캠프 본진이 차려진 오키나와로 합류하는 등 타선에 큰 고민은 없다.

돌아온 최희섭도 마침내 타석에 섰다. 흥팀의 4번 타자 겸 1루수로 나선 최희섭은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며 그라운드 복귀를 알렸다.

KIA가 주목하고 있는 신인 내야수 황대인도 첫 실전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등 기대대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수비 위치 잡기는 분주하다. 2루를 책임져왔던 안치홍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공·수에서 안치홍의 빈틈을 최소화 할 인물 찾기가 오키나와 캠프에 던져진 숙제다. 6일 첫 흥백전에서는 예비역 최용규와 최병연이 양팀의 2루를 지켰다.

지난 시즌 중양을 책임졌던 이대형의 kt 이적으로 외야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다. 김원섭과 황수현이 중견수로 첫 흥백전을 시작했고, 2루 겸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주찬은 일단 좌익수로 실전에 나섰다.

마운드는 아직 안개속이다. 에이스 양현종과 새 외국인 롬비 스티븐슨과 험버가 선발 자리를 예약해 놓았지만 남은 자리의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김진우가 2군 선수단과 대만에서 ‘절치부심’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련한 김병현은 얼마 전 관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 마무리의 경우에도 좌완 심동섭이 유력하지만 확정은 아니다.

마운드에서는 KIA가 선발과 마무리 후보 카드로 만지작 거리고 있는 한승혁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흥팀 선발이었던 한승혁은 2이닝 6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지만 바로 145km를 찍으며 몸을 풀었다. 비로 예정됐던 라이브를 소화하지 못하고 처음 마운드에 선 것을 감안하면 괜찮았다는 평가다.

8일 예정됐던 두 번째 흥백전은 강풍으로 취소가 됐지만 4일턴으로 전환하는 다음 주, KIA는 다시 흥백전을 갖고 워밍업을 끝낼 예정이다. 그리고 15일 야구르트와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실전을 통해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자리싸움을 펼치게 된다.

실전이 시작되면서 KIA의 2015시즌 윤곽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에이스’ 신다운, 나이스~

### ISU 월드컵 쇼트트랙 5개 대회 연속 ‘金’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신다운(서울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서 다섯 개 대회 연속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신다운은 8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4-2015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전에서 2분24초43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신다운에 이어 박세영(단국대)이 2분24초615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신다운은 이날 우승으로 올 시즌 치른 5차례 월드컵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신다운은 솔트레이크시티 1차 대회와 상하이 3차 대회, 서울 4차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1,500m 정상에 올랐고 몬트리올 2차 대회에서는 1,000m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신다운은 2013-2014시즌에도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로 불렸으나, 소치 올림픽 무대에서 부담감 탓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다운의 짐체 속에 남자 쇼트트랙도 노메달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신다운은 부담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한 올 시즌에는 정상을 놓치지 않으며 에이스의 명예를 회복해 가고 있다.

신다운이 맹활약하는 사이, 여자 대표팀에서는 ‘특급 기대주’ 최민정(서현고)이 4개 대회 연속 금메달 행진을 벌였다.

최민정은 여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전에서 2분29초791의 기록으로 노도희(한국체대·2분30초592)를 제치고 우승했다. 최민정은 또 다른 여고생 에이스인 심석희(세화여고)와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쌍끌이할 것으로 기대받는 선수다. 갓 성인 무대에 이름을 내민 최민정은 몬트리올 2차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네 대회째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소치올림픽에서 활약한 김아랑(한국체대)도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0초368의 기록으로 판커신(중국·1분30초451)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아랑은 무려 세 명의 중국 선수와 불리한 경쟁을 벌인 끝에 올 시즌 첫 번째로 개인 종목 금메달을 따내는 감격을 안았다.

/연합뉴스

## 전남체고 태권소년 임금별 태극마크



전남체고 1년 임금별이 지난 6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5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시원한 발차기를 선보이고 있다.

###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한국 여자태권도의 신데렐라’ 임금별(전남체고 1)이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임금별은 지난 5~6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5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여자부 -53kg급에서 실업·대학부 선수를 모두 물리치고 우승,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광주·전남 출신 여고생 국가대표 발탁은 처음이며, 2008베이징·2012런던대회 등 한국 태권도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황경선(여·29·-67kg급)을 이을 기대주다.

임금별은 8강전에서 김유진(인천시청·2014년 국가대표 2진)을 12대 0으로, 4강전에서 장혜영(동아대)을 27대 13으로 격파했다. 승자 결승에서는 남현정(효정고 2년)을 11대 5로 물리친 뒤, 최종 결승에서도 남현정을 7대 5로 연거푸 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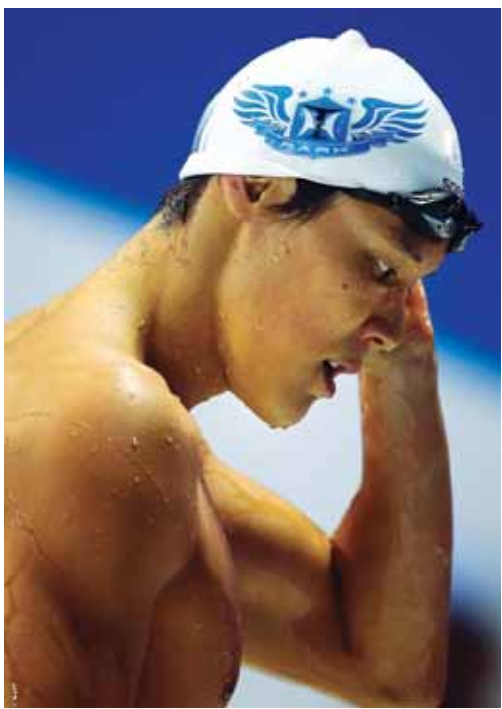
완도 출생의 임금별은 타고난 태권소년녀다. 178cm, 54kg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지닌 그는 전남체중 1년때 첫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2·3학년때 금메달을 차지, 2연패했다. 지난해에는 제주 전국체전 금메달 등 전국대회 전관왕(4관왕) 무패 행진을 기록했다. 그는 큰 키에서 뿔어져 나오는 원발 앞꿈발차기가 주특기다. 타고난 체력에 유연성과 순발력을 갖췄다. 오른발·왼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등 ‘천부적인 태권소년’, ‘대형특점의 교과서’로 통한다.

임금별의 목표는 5월 러시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내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우승이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면 랭킹포인트 120점을 획득, 내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금별을 발굴한 김광모(54) 전남체고 감독은 “2016 브라질 리우, 2020 일본 도쿄 올림픽 2연패 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검찰 “병원 잘못”...FINA의 선택은

도핑테스트에 걸린 수영 스타 박태환(26)이 검찰 수사 결과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주사제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관심은 국제수영연맹(FINA)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모이고 있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서울 T병원 원장 김모씨를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김 원장을 상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봤다.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박태환에게는 아직 더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소명한다. 청문회 전까지는 비밀 유지가 돼야 했을 도핑테스트 적발 사실이 알려질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검찰에 해당 병원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는 객관적인 증거로 삼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FINA는 박태환의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

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 및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WADA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박태환은 지난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강화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박태환은 FINA의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자격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자격정지는 박태환의 소년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후 처리

진 인턴 아시안게임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될 수 있다. 단체전인 계영 종목에서는 동료의 메달도 함께 박탈된다. 게다가 단 1개월이라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태환에 약물 투여 병원장 기소...27일 스위스서 청문회

### 선수 주의 의무 어겨 징계 불가피...올림픽 출전 혐로